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이미라, 김미자*

¹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Mi-Ra Lee¹, Mi-Ja Kim^{2*}

¹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Science & Technology

요 약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부적절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317명(응답률 94.6%)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네 변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도 높아졌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6%였다. 직업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대학생활적응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높여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s of vocational identity, adaptation in a nursing school, and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to examine their interrelationships, and to investigate predi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35 nursing students in D city who were survey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6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from 317 participants (response rate 94.6%) were analyz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vocational identity.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vocational identity. These three factors explained 50.6% of the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Due to the high turnover rate among new nurses, it is critical that nursing students have a vocational identity as nurses. In order to improve vocational identity, nurse educators should consider helping students to adapt to nursing college, and to become satisfied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Keywords : College adaptation,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major, Vocational identity

*Corresponding Author : Mi-Ja Kim(Daejeon Institute Science & Technology)

Tel: +82-42-580-6297 email: kmija67@daum.net

Received March 12, 2018

Revised April 12,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1.1 연구필요성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한국은 청년층 실업률 13.1%[1]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의 입시 경쟁은 크게 과열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간호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2017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20,200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 하고 있다[2]. 그러나 각 병원마다 퇴직을 원하는 간호사들이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병원간호사의 이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5.5%에 달한다[3]. 이러한 이직 원인은 간호사 개인·대인관계·직무·조직·국가 특성 등의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4] 무엇보다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 취업 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Reality Shock’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신규간호사가 간호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 실무에 투입되게 됨으로써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5], 이렇게 높은 간호사 이직률은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직업정체성은 국내 선행 연구에서 진로정체성(career identity)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직업정체성은 직업(職業)과 정체성(正體性)의 합성어로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고,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6]이다. 이에 반해 진로(進路)는 ‘앞으로 나아갈 길’[6]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정체성은 개인 경력의 목표, 능력, 교육적 흥미,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7]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활동이나 흥미, 능력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반면에, 진로정체성 개념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등 진로에 대한 인지적인 면, 성격-정서적인 면과 실제적인 행동의 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8]. 따라서, 진로정체성은 자아개념과 더 연관성이 깊고 광범위한 개념인 반면에, 직업정체성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에 대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 직업적 영역에 보다 국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정체성으로 표기된 국내 선행연구라 할지라도 Holland, Gottfredson, & Power [7]의 직업정체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직업정체성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로정체성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전인 중고등학생 시절에 정립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중한 대학입시 준비로 인해 간과되어 대학생 시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진로를 결정한 상태로서 대학 생활에서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은 간호대학에서 발달하기 시작하고, 대학에서 직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전이와 관련성이 깊으며, 실제로 직업정체성이 낮은 수준의 간호대학생은 간호대학 중도탈락율이 증가한다[9]. 또한,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은 대학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간호직을 수행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력개발의 주요 요소이자 사회적 적응의 핵심으로,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 정도와도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10].

임상실습은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인 동시에 간호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이며[11],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임상실습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12]. 직업정체성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 모호성에 직면했을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결정능력을 갖게 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13], 간호학생이 새로운 환경인 대학이나 임상현장실습에서 실습에 적응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소명, 성취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14],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는 직업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직업정체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진로정체성과 자아존중감[5,15], 진로정체성과 전공만족도[16], 진로정체성과 대학적응[17] 등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쳤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를 알아보고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부적절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317명(응답률 94.6%)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직업정체성

직업정체성은 Holland, Gottfredson, & Power[7]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 영역 중

VI (Vocational Identity Inventory Scale)을 Kim[1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Kwon[19]이 간호대학생의 Vocational identity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채점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19]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0이었다.

2.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20]가 제작한 학생적응도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Lee[21]가 번안 및 수정하고 Ju[22]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 적응(5문항), 사회적 적응(5문항), 정서적 적응(5문항), 신체적 적응(4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8이었다.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3]이 개발한 도구와 Lee[24]이 개발한 도구를 Lee, Kim과 Kim[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1문항, 6개 하위(실습교과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 만족도 3문항)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3이었다.

2.3.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26]이 개발하고 Lee[2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 4개의 하위(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9이었다.

2.4 자료수집

D 지역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할 것에 서면 동의한 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기간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었으며, 목표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2T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와 15개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 199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335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부적절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317부(응답률 94.6%)를 분석하였다.

2.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승인(1041490-20161010-HR-004)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취지, 익명성 보장,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5-7분), 연구 참여시 직접적인 이득은 없지만 설문응답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연구 참여자 권리에 관해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에 따른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도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

정체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여자 274명(86.4%)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152명(47.9%), 4학년 165명(52.1%), 나이는 만 20-21세 109명(34.4%), 만 22-23세 120명(37.9%), 만 24세 이상 88명(27.8%)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176명(55.5%), 기독교 88명(27.8%), 천주교 32명(10.1%)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 86명(27.1%), 양호 211명(66.6%)이었다. 주거형태는 자취 197명(62.1%), 부모님과 거주 88명(27.8%), 기숙사 19명(6.0%) 순이었고, 경제수준은 좋은 편 203명(64.0%), 어려운 편 103명(32.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을 때문에 150명(47.3%),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95명(30.0%),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로 44명(13.9%)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평점 2.0~2.9 52명(16.4%), 평점 3.0~3.9 212명(66.9%) 이었다. 교우관계는 매우 좋은 편 27명(8.5%), 좋은 편 279명(88.0%)으로 나타났고, 실습만족은 매우 만족 21명(6.6%), 만족 261명(82.3%), 불만족 31명(9.8%)으로 나타났다.

3.2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직업정체성

3.2.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29±(0.50)점이었고, 하위요인별 '사회적 적응'이 평균 3.55±(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 3.46±(0.62)점, '정서적 적응' 3.24±(0.77)점, '신체적 적응' 3.10±(0.64)점, '학문적 적응' 평균이 3.02±(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살펴보면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었다'(M=4.0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R)'(M=2.3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66±(0.49)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인식만족’이 3.82±(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 3.66±(0.56)점, ‘교과만족’ 3.49±(0.64)점, ‘관계만족’ 평균이 3.49±(0.68)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은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M=3.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 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M=3.9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M=3.84),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M=3.28)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42±(0.46)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실습환경만족’이 3.62±(0.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평가만족’ 3.61±(0.63)점, ‘실습교과만족’ 3.58±(0.64)점, ‘실습지도만족’ 3.45±(0.57)점, ‘실습시간만족’ 3.34±(0.79)점, ‘실습내용만족’ 평균 2.99±(0.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실습장소의 분위기는 학생에게 적절한 긴장감

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7)

Variables	N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ocational identity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43	3.41±0.52	1.703	3.63±0.53	-.351	3.43±0.51	.239	2.73±0.48	.130
	Female	274	3.27±0.49	(.090)	3.66±0.48	(.725)	3.41±0.45	(.811)	2.72±0.44	(.896)
Grade	Junior	152	3.18±0.50	-3.849***	3.63±0.47	-.795	3.34±0.46	-3.057**	2.64±0.42	-3.187**
	Senior	165	3.39±0.47	(.000)	3.68±0.51	(.427)	3.49±0.45	(.002)	2.79±0.46	(.002)
Age(yr)	20-21	109	3.25±0.49		3.66±0.45	.019	3.40±0.44	.091	2.67±0.41	1.667
	22-23	120	3.31±0.49	.587	3.66±0.54	(.981)	3.42±0.43	(.913)	2.72±0.45	(.190)
	≥24	88	3.31±0.50		3.65±0.46		3.43±0.53		2.78±0.48	
Religion	Protestant	88	3.33±0.52		3.73±0.50		3.45±0.46		2.81±0.45	
	Catholic	32	3.34±0.53		3.59±0.56	1.052	3.55±0.48	1.211	2.74±0.60	1.648
	Buddhist	18	3.46±0.52	1.246	3.67±0.35	(.381)	3.41±0.65	(.306)	2.57±0.37	(.162)
	Non	176	3.24±0.47		3.63±0.48		3.38±0.44		2.69±0.41	
	Other	3	3.29±0.45		3.87±0.39		3.42±0.50		2.62±0.62	
Health level	Good	86	3.50±0.49 ^a	23.403***	3.71±0.49	1.173	3.51±0.44 ^a	5.331**	2.82±0.45 ^b	5.323**
	Moderate	211	3.25±0.46 ^b	(.000)	3.65±0.49	(.311)	3.40±0.46 ^b	(.005)	2.70±0.43 ^{ab}	(.005)
	Poor	20	2.75±0.38 ^c		3.53±0.44		3.16±0.48 ^b		2.49±0.47 ^b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88	3.35±0.48		3.69±0.51 ^b		3.46±0.48		2.71±0.44	
	Housing alone	197	3.25±0.51	1.131	3.60±0.48 ^b	4.020**	3.38±0.45	.923	2.71±0.46	.582
	Dormitory	19	3.42±0.39	(.270)	3.96±0.44a	(.008)	3.48±0.42	(.430)	2.76±0.38	(.627)
	Other	13	3.28±0.53		3.82±0.37ab		3.53±0.51		2.87±0.32	
Economic level	Very good	3	3.18±0.33 ^b		3.46±1.39		3.33±0.51		2.71±0.71	
	Good	203	3.35±0.51 ^a	2.963*	3.69±0.48	1.195	3.45±0.47	1.669	2.74±0.44	.605
	Poor	103	3.18±0.45 ^b	(.032)	3.59±0.48	(.312)	3.34±0.42	(.174)	2.67±0.45	(.612)
	Very poor	8	3.17±0.53 ^b		3.62±0.49		3.53±0.58		2.75±0.44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Academic score	17	3.14±0.55 ^b		3.43±0.63 ^b		3.29±0.55		2.60±0.40 ^c	
	Aptitudes	95	3.42±0.45 ^a		3.78±0.51 ^a	3.245*	3.51±0.42	2.139	2.86±0.45 ^{ab}	4.739*
	Employment	150	3.24±0.49 ^{ab}	2.654*	3.59±0.45 ^{ab}	(.033)	3.36±0.49	(.076)	2.65±0.44 ^{abc}	(.001)
	Advice	44	3.23±0.54 ^{ab}		3.66±0.45 ^{ab}		3.41±0.40		2.62±0.42 ^{bc}	
	other	11	3.27±0.57 ^{ab}		3.74±0.51 ^a		3.54±0.41		2.90±0.20 ^a	
Academic score	2.0~2.9	52	2.98±0.48 ^c	22.232***	3.48±0.46 ^c	11.344***	3.29±0.47	2.374	2.58±0.45 ^b	9.310***
	3.0~3.9	212	3.29±0.46 ^b	(.000)	3.64±0.47 ^b	(.000)	3.45±0.45	(.095)	2.70±0.41 ^b	(.000)
	≥4.0	53	3.58±0.48 ^a		3.91±0.50 ^a		3.42±0.49		2.93±0.49 ^a	
Friendship	Very good	27	3.70±0.48 ^a	14.480***	3.80±0.44	1.297	3.58±0.42	2.061	2.90±0.49	2.808
	Good	279	3.26±0.48 ^b	(.000)	3.64±0.50	(.275)	3.41±0.46	(.129)	2.70±0.44	(.062)
	Bad	11	2.89±0.38 ^c		3.63±0.40		3.32±0.50		2.62±0.3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good	21	3.58±0.69 ^a	8.833***	3.97±0.55 ^a	14.974***	3.68±0.38 ^a	24.253***	2.97±0.55 ^a	8.422***
	Good	261	3.31±0.45 ^{ab}	(.000)	3.69±0.43 ^{ab}	(.000)	3.47±0.42 ^a	(.000)	2.74±0.40 ^{ab}	(.000)
	Bad	31	2.94±0.56 ^b		3.20±0.59 ^b		2.87±0.34 ^b		2.42±0.59 ^{bc}	
	Very bad	4	2.99±0.20 ^b		3.25±0.38 ^b		2.90±0.67 ^b		2.36±0.45 ^c	

*p<.05, **p<.01, ***p<.001

Scheffé test : c<b<a

을 준다'(M=3.8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평가기준을 학생에게 미리 알려 준다'(M=3.86) 순으로 높았다. 또한, '임상실습 시 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만 반복한다(R)'(M=2.24)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2.4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2.72±(0.45) 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직은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 않는다(R)'(M=3.00)가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에 관하여 자신이 없다(R)'(M=2.94), '간호직에 대해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R)'(M=2.93)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나는 현재 간호학에 대한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M=2.30)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직업정체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대학생활적응은 학년($t=3.849, p<.001$), 건강상태($F=23.403, p<.001$), 경제수준($F=2.963, p<.05$), 간호학과 선택동기($F=2.654, p<.05$), 성적($F=22.232, p<.001$), 교우관계($F=14.480, p<.001$), 실습만족($F=8.83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의 경우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좋은 편인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교우관계가 좋은 편일수록, 실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주거형태($F=4.020,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3.245, p<.05$), 성적($F=11.344, p<.001$), 실습만족($F=14.97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실습에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학년($F=3.057, p<.01$), 건강상태($F=5.331, p<.01$), 실습만족($F=24.25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학년의 경우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체성은 학년($t=3.187, p<.01$), 건강상태($F=5.323,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4.739, p<.01$), 성적($F=9.310, p<.001$), 실습만족($F=8.42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정체성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실습에 만족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직업정체성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r=.440, p<.001$), 임상실습만족도($r=.436, p<.001$), 직업정체성($r=.67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r=.454, p<.001$), 직업정체성($r=.49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직업정체성($r=.45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17)

Variable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major	.44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436***	.454***	
Vocational identity	.670***	.493***	.451***

***p<.001

3.5 대상자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8.742$, $p<.001$). 또한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2.140으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는 대학생활적응($\beta=.524$, $p<.001$), 전공만족도($\beta=.202$, $p<.001$), 임상실습만족도($\beta=.131$, $p<.01$)가 직업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Vocational Identity (N=317)

Variable	B	SE	β	t
College adaptation	.471	.041	.524	11.373***
Satisfaction of major	.184	.042	.202	4.34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27	.045	.131	2.822**

$R^2=.510$, $Adj.R^2=.506$, $F=108.742^{***}$, $p=.000$, $Dubin-Watson=2.140$

** $p<.0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로서의 직업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간호사의 이직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29\pm(0.64)$ 점/5점으로, 간호보건계 1, 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Jeon [28]의 연구에서 평균 3.19점보다 높았고,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9]의 연구 3.34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아진다는 Lee와 Jeon [28]의 연구결과와 보다는 3학년보다는 4학년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Choi [29]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 간호학과 선택동기, 성적, 교우관계, 실습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입학동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입학 동기는 성적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Lee와 Jeon [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별로는 ‘사회적적응’이 $3.55\pm(0.5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문적적응’이 $3.02\pm(0.65)$ 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적응’ 요인은 교우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영역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 요인 중에서 ‘나는 과목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항에서는 $2.62\pm(0.99)$ 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학문적적응’ 요인은 학습에 대한 영역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Cha와 Lee [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은 학과 공부이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학과 공부와 대외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평균 $3.66\pm(0.49)$ 점/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27], Lee [31]연구결과에서의 평균 점수 보다 낮았다. 하위 요인별로는 ‘인식만족’ 평균점수가 $3.82\pm(0.70)$ 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Lee[31]연구에서 ‘인식만족’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동일하다. 문항별로 보면,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만족’ 영역의 ‘전공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간호학 공부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는 있지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주거 형태(기숙사), 간호학과 선택 동기(적성과 취미 고려), 성적, 실습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주거형태 중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자취나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Choi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한 대학의 경우, 신입생 때는 원하는 학생 모두가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므로 기숙사 거주와

성적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교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Cho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고교 성적이나 취업 가능성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3.42±(0.46)점/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ark, Lee와 Gu [32]의 3.23점,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 [14]의 연구 결과 3.36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이 학년, 건강상태, 실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Kim과 Lee [14]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 성적, 교우관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Jeon과 Kim [33]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동료관계, 건강상태, 입학동기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학동기나 성적, 교우관계가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 요인별로는 ‘실습환경’ 3.62±(0.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 만족도가 2.99±(0.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Lee, Kim과 Kim [25]연구에서 ‘실습환경’ 3.02점, ‘실습내용’ 2.60점, Park, Lee와 Gu [32]연구에서 ‘실습환경’ 3.23점, ‘실습내용’ 만족도 2.56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점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실습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이라는 것은 모두 동일했다. ‘실습내용’ 영역 중 특히, ‘임상실습시 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만 반복한다’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실습 중 때때로 할 일이 없음을 느낀다’가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도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목별 실습, 실습 장소에서의 학생 수 배치, 집담회 장소의 준비 등과 같은 실습환경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잘 마련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지만, 학생이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최소화되고 단순 관찰이나 활력징후 측정만을 할 수 있는 임상 실습내용임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1,00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상실습 시간 자체만을 고수하기보다

는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시간의 확대와 같은 효율적인 임상 ‘실습내용’ 만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Sun, Gao, Yang, Zang과 Wangs [34]은 임상현장의 새로운 방문자인 간호학생은 소진의 주요 영향요인인 역할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게 되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환영받고 존중받을 때 학생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잘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며[35],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6]. 간호학생에 있어서 임상실습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을 위한 임상현장·교육·행정 등의 간호계 전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생의 효과적인 임상멘토링을 위한 열쇠는 멘토쉽 질을 보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37], 임상현장에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질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정체성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72±(0.45)점[총점 평균 38.08±(6.3)점]이었다. 이러한 점수는 Kwon [19]의 연구에서 총점 32.08~34.50점 보다 높은 점수이다. 또한,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Lee [5]연구에서의 평균 2.67점 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정체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승한다는 Oh와 Lee [17], Lee [38]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도 3학년보다 4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직업정체성은 학년, 건강상태, 간호학과 선택 동기, 성적, 실습만족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정체성은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동기, 대학생생활만족도, 간호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Nam과 Lee [15]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Cho와 Lee [5]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은 입학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업정체성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입학동기에서 적성고려보다는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직업정체성이 낮고, 정체성이 낮을수록 졸업 후 이직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나, 입학 후에는 조정 불가능한 변수이다. Gong [39]연구에 의하면,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

들이 전공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외적 동기로 선택한 전공에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의 욕구가 충족되어 자신의 선택이 내면화되어야 하고, 목표와 통합될수록 진로 정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가족 등의 의미 있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지지받는다면 외적 동기로 선택한 행동을 내면화 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계에서의 욕구충족 경험을 통하여 간호학생의 직업정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적 동기를 통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라도 학과 친구, 부모 등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담 시 이용하는 지도교수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네 변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는 직업정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적응력이 높았다는 Cho[16], Oh와 Lee [17]연구 결과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다는 Lee, Kim과 Kim [25], Lee [31]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론 뿐 아니라 임상실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간호학의 특성상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임상실습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지는[31]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경로모형 분석 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이 임상실습만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직업정체성은 임상실습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는 Kwon과 Kwag [40]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업정체성은 직업몰입도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Cox, Bjornsen, Krieshek과 Liu [41]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도 높아졌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6%였다. 직업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대학생활적응이었으므로, 결국 직업정체성을 잘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입학 초기부터 대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에는 낙관적 태도, 전공만족, 학업성취도, 자신감, 성적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28], 대학과 간호학과 차원에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Kimmel [42]은 간호대학에 진학하기 전 단계에 있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직업 프로그램(vocational nursing program)이라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특히 중도탈락률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전에 다음 학기에 이뤄질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고 학기 중간에 중간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재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그것은 결국엔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인식만족’이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Lee [38]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 현재 진로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의 진로성공기대감이 높을수록 높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진로상담이 진로선택 및 결정의 만족도와 진로성공기대감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이 진로정체감 수준이 타 학과에 비해 높음은 진로성공기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공만족도 하위 요인에서 ‘인식만족’ 영역이 특히 높은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임상실습만족도 하위 요인에서는 특히 ‘실습지도만족’이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습지도만족’ 요인은 임상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 적절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는 영역으로서 임상실습만족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전문직업관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직업정체성과 간호전문직관과 상관성이 있다는 Kim과 Park [12]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임상실습현장에서의 폭력성을 경험한 간호학생은 직업정체성과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과정을 통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전문직 정체성은 역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때 이직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Sun, Gao, Yang, Zang과 Wangs [34]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올바르게 갖는 것은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명확한 직업정체성은 성공적인 역할 전이, 직업에 대한 흥미와 일치, 일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41] 만큼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실 있는 실습내용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ited 2017 April],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accessed Oct., 27, 2017)
- [2] Nursing Association Newspaper, [cited 2017 Jan. 24],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x?sSection=62&idx=21152> (accessed Oct., 10, 2017)
- [3] Young Doctors Newspaper, [cited 2017 April], Available Fro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318> (accessed Oct., 10, 2017)
- [4] L. Daouk-Oyry, A. Amouze, F. Otaki, NY. Dumit, I. Osman, "The Joint Model of Nurse Absenteeism and Turnover: A System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51, no. 1, pp. 93-110, 2014.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3.06.018>
- [5]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63-173, 2006.
- [6] Naver Dictionary, <http://dic.naver.com>.
- [7] J. L. Holland, D. C. Gottfredson,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pp. 1191-1200, 1980. DOI: <https://doi.org/10.1037/h0077731>
- [8] S. Kim, S.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Ident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3, pp. 1425-1441,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3.201206.1425>
- [9] M. Worthingto, Y. Salamonson, R. Weaver, M. Cleary, "Predictive Validity of the Maceod Clark Professional Identity Scale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 Today*, vol. 33, no. 30, pp. 187-91,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01.012>
- [10] A. Hirsh, "Vocational Ident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Self Evaluations and Life and Job Satisfaction", *Appl Psychol-Int Rev*, vol. 60, no. 4, pp. 622-644, 2011. DOI: <http://doi.org/10.1111/j.1464-0597.2011.00450.x>
- [11] L. O' Mara, J. McDonald, M. Gillespie, H. Brown, L. Miles, "Challengi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4, no. 2, pp. 208-213, 2014.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3.08.012>
- [12] O. Kim, M. Park, "Relations among Career Identi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Viol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8, no. 27, pp. 1-8, 2015. DOI: <https://doi.org/10.17485/ijst/2015/v8i27/86863>
- [13] J. L. Holland, J. A. Johnston, N. F. Asama,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is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 no. 1, pp. 1-12, 1993.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300100102>
- [14] K. Kim, B.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85-896,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85>
- [15] M. H. Nam, M. Le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2 no. 4, pp. 527-536,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527>
- [16]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937>
- [17] B. Oh, S. Lee,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steem,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between Vocational Identity Status: Focused on the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1, pp. 47-67, 2013.
- [18]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7.
- [19] Y. H. Kwon, "Effect of Ready Planned Self-esteem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2.
- [20] R. W. Baker, B. St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21]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9.
- [22] H. Ju, "Life Stress, Self-efficacy, Physical Symptoms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2013.

- [23] K. J. Ch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2, pp. 63-74, 1984. DOI: <https://doi.org/10.4040/jnas.1984.14.2.63>
- [24] S.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pp. 333-348, 2001.
- [25]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B 2004.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1296>
- [26] H.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0.
- [27]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28] M. Lee, H.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861-8869,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29] H.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68-77,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6.68>
- [30] S. K. Cha,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650-658,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31] J. Lee,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vol. 12. no. 3·4, pp. 213-224, 2011.
- [32] M. Park, M. Lee, J. Gu,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29, no. 2, pp. 111-123, 2011.
- [33] M. Jeon., M. Kim.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8, no. 1, pp. 40-48,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40>
- [34] Sun, Li., Gao, Ying., Yang, Juan., Zang, X., Wang., Y. "The Impact of Professional Identity on Rol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Int J. Nurs Studies*, vol. 63, pp. 1-8, 2016.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6.08.010>
- [35] C. Bradbury-Jones, S. Sambrook, P. Irvine, "Empowerment and Being Valued: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vol. 31, pp. 368-372, 201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0.07.008>
- [36] P. Pearcey, P. Draper, "Exploring Clinical Nursing Experiences: Listening to Student N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 28, pp. 595-601, 2008.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7.09.007>
- [37] B. Skela-Savic, A. Kiger, "Self-assessment of Clinical Nurse Mentors as Dimensio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 Capability of Developing Ethical Values at Nursing Students: A Correlational Research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35, no. 10, pp. 1044-1051, 2015.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04.003>
- [38] S. K. Lee.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141-153. 2006.
- [38] Y. Gong.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Adjustment Who Decide on Their Majors Primarily Based on Extrinsic Motivation",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18, 2014.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52630>
- [39] Y. Kwon, O. Kwag,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1, pp. 4441-4448, 2010. DOI: <http://doi.org/10.5762/KAIS.2010.11.11.4441>
- [40] D. W. Cox, A. L. Bjornsen, T. S. Krieschok, Y. Liu, "Occupational Engagemen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Vocational Identity's Mediating Rol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64, pp. 169-180, 2016. DOI: <https://doi.org/10.1002/cdq.12049>
- [41] K. D. Kimmel, "The Effect of Specialized Orientation Programs on High-risk Students in a South Central Texas Community College Vocational Nursing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UMI no. 9980168), 2000.

이 미 라(Mi-Ra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의료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노인간호

김 미 자(Mi Ja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5년 2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감염관리